

# 어떤 점

2025 C:MUSE 전시 기획 프로젝트  
전시기획서



# CONTENTS



## 1 • 컬쳐유니버 소개



**컬쳐유니버**는 1998년부터 시작한 대학 연합 문화마케팅 학회로,  
문화마케팅에 열정을 가진 대학생들이 모여 문화산업 및 문화마케팅 전반에 걸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매주 2회 이상 진행되는 스터디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경쟁 PT부터 작가님들과의 협업으로 전시를 개최하거나  
극단을 모집하여 연극/뮤지컬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독립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 2 • C:MUSE 소개



예술가와 관람객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프로젝트 **C:MUSE**

**C:MUSE**는 컬쳐유니버에서 파생된 **전시 기획 프로젝트 팀**으로,  
관객과 예술가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는 바람으로 결성되었습니다.

본 팀은 청년 예술가에게 작품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관람객과 예술가가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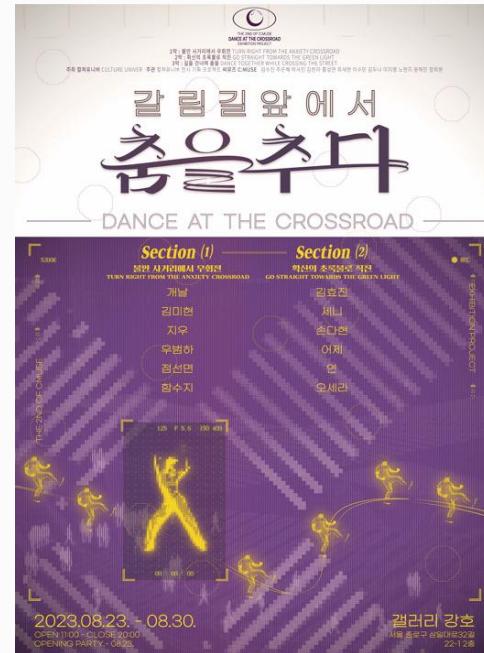


## 2 ● 역대 C:MUSE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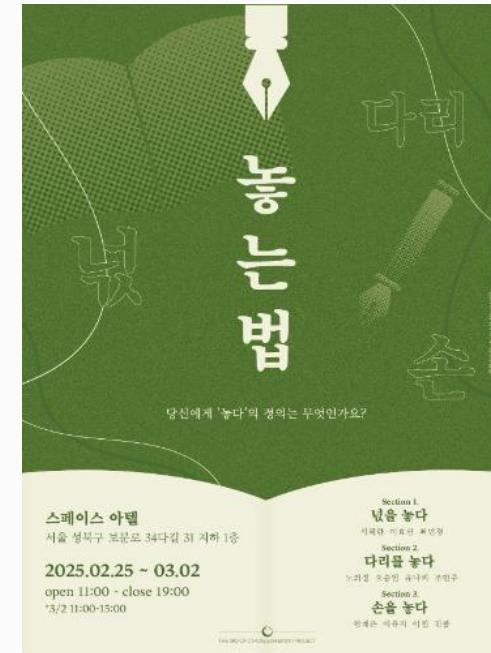
### 1기 <소진되었습니다>

소진의 순간을 인지하고 선언함으로써  
그 경험을 바라보는 방식을  
전환하는 계기 제공



### 2기 <갈림길 앞에서 춤을 추다>

갈림길 앞에서 마주한 감정들을  
들여다보고, 자신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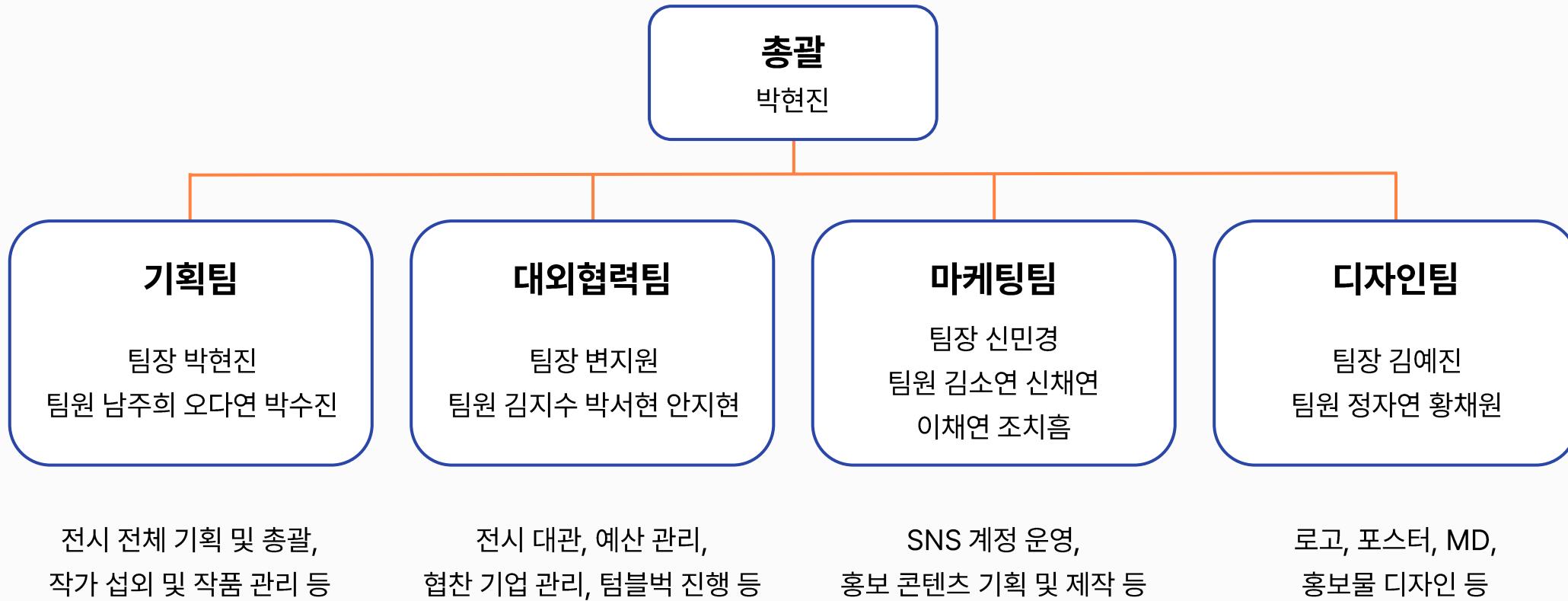


### 3기 <놓는 법>

안녕의 순간을 마주함으로써  
새 시작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계기 마련



## 2 ● C:MUSE 4기 소개



# 어떤 점

2025 C:MUSE 전시 기획 프로젝트  
전시기획서

**Section 1. 한계점에 이르다**

**Section 2. 변곡점을 맞이하다**

**Section 3. 초점을 맞추다**

**Section 4. 기점으로** \*관객 참여형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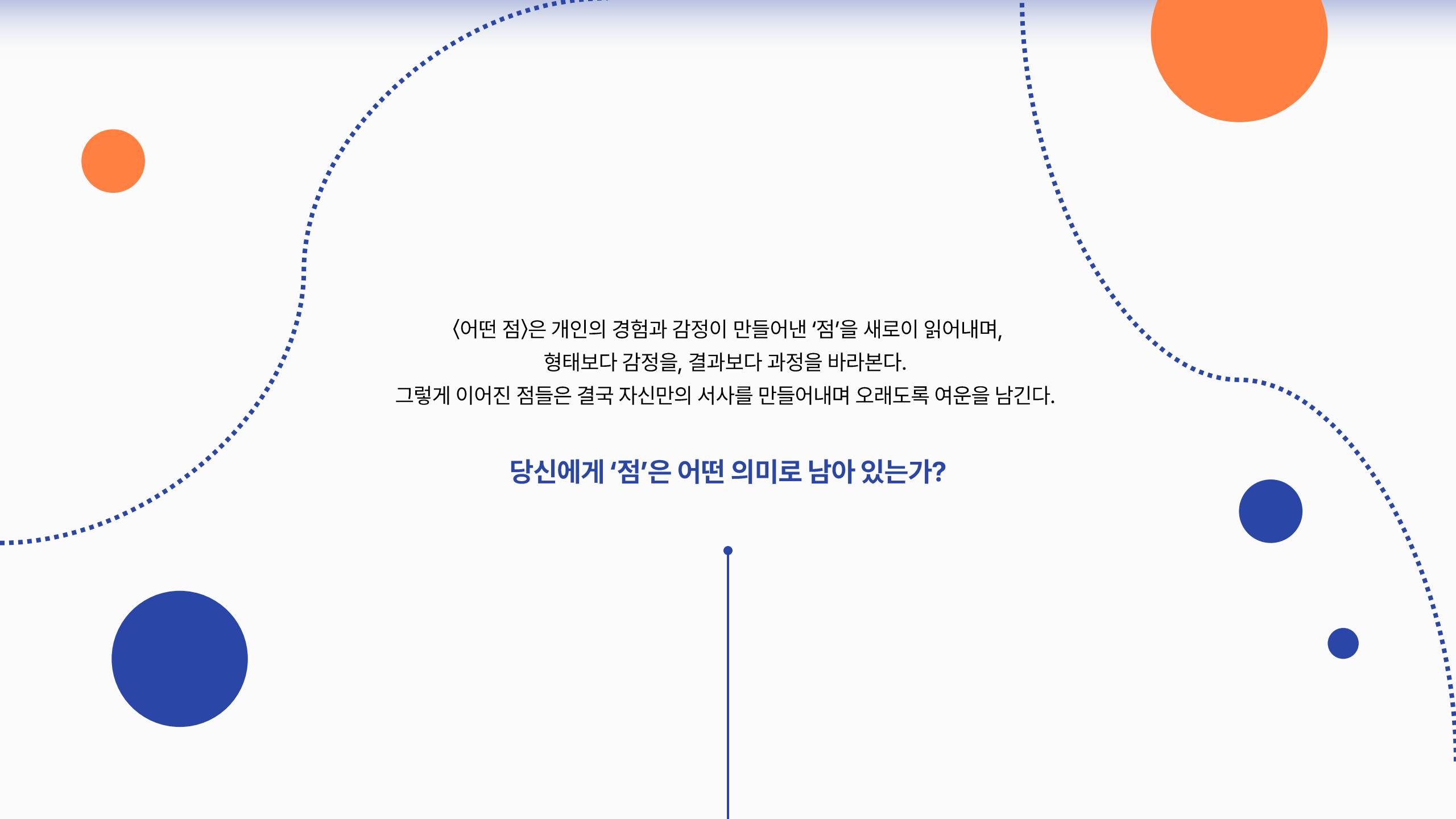


## ● 전시 소개 ●

'점'은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다.  
누군가에게는 시작의 흔적이고, 누군가에게는 망설임의 흔적이다.

헤매던 마음이 닳은 곳마다 새로운 점이 찍혔다.  
점들은 또 다른 큰 점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저마다의 방향으로 향하기도 한다.

우리가 걸어온 자리를 돌아보면 수많은 점들이 놓여 있다.  
멈춰 선 순간에도, 방향을 잃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점을 찍고 있었다.



(어떤 점)은 개인의 경험과 감정이 만들어낸 '점'을 새로이 읽어내며,  
형태보다 감정을, 결과보다 과정을 바라본다.

그렇게 이어진 점들은 결국 자신만의 서사를 만들어내며 오래도록 여운을 남긴다.

당신에게 '점'은 어떤 의미로 남아 있는가?

## ● 기획의도 ●

우리는 매 순간 점을 찍으며 살아간다.

지나쳐온 수많은 선택의 순간, 스치듯 머물렀던 감정, 오래도록 마음에 남은 기억들까지.

그 모든 순간은 우리 안에 작은 점으로 남아, 저마다의 색과 형태를 지닌 채 하나의 궤적을 그려 나간다.

이번 전시 <어떤 점>은 점을 단순한 형태가 아닌 **경험**으로 바라본다.

점은 고정된 의미를 벗어나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되는 존재로 재해석된다.

흩어져 보이던 순간들이 결국 나를 이루는 점이라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 전시는 완성된 해석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찍어온 점을 되돌아보고 그 점이 만들어온 궤적을 마주할 수 있는 여백을 남긴다

**전시가 끝난 뒤, 누군가가 '나는 이런 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또 하나의 점이 찍힌 셈이다.**

그렇게 찍힌 점은 다음 순간과 만나 새로운 궤적을 그리며 우리의 삶을 조금씩 확장시킨다.



## ● 전시 컨셉 ●



<어떤 점>은 우리의 점, 즉 지난 경험들을 연결하는 '**노선도**'를 컨셉으로 삼았다.

노선도는 단지 목적지를 안내하는 지도가 아니다.

여러 갈래의 경로가 교차하고, 어떤 길은 우회하며, 또 어떤 길은 예상치 못한 곳과 연결된다.

특히 각 지점이 독립된 경험이 아닌, 서로 연결되며 일정한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삶 또한 당장은 눈 앞의 성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들도 결국 하나의 경로 위에 놓이며 나를 구성한다는 메시지를 '**노선도**'라는 컨셉에 녹여냈다.



- 전시 구성



### [Section 1. 한계점에 이르다]

섹션 1에서는 스스로의 한계를 맞이했던 순간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드는 듯해 감추고 싶어지는 그 지점도, 사실은 우리를 이루는 하나의 '점'입니다.

누구나 한계를 마주하며 흔들리고 아파하지만, 그 경험은 시간이 지나 우리 안에 조용히 자리하며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 섹션을 통해 관람객이 자신의 한계와 관련된 순간을 떠올리고,

그 경험이 현재의 자신에게 어떻게 남아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숨기고 싶었던 한계점은 어떤 모습인가요?



- 전시 구성



## [Section 2. 변곡점을 맞이하다]

섹션 2에서는 우리를 바꾼 경험을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점들 중 지금의 우리로 변화하게 한 경험을 되짚어봅시다.

그중 마음에 울림을 남긴 순간이 각자가 맞이한 변곡점일 것입니다.

변곡점에서는 여러 의미가 총총이 쌓이며, 한마디로는 형용하기 어려운 순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섹션을 통해 우리는 어디서 그 점을 맞이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을 변화시킨 변곡점은 무엇인가요?



- 전시 구성



### [Section 3. 초점을 맞추다]

섹션 3에서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행복했던 순간을 동기 삼아, 힘들었던 순간을 양분 삼아 지금의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점을 연결해 나아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지 사색할 차례입니다.

비록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성장해왔습니다.

이 섹션을 통해 우리의 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초점은 어디에 있나요?



- 전시 구성



#### [Section 4. 기점으로] 관객 참여형 콘텐츠

섹션 4에서는 기점으로 돌아갑니다.

기점은 관람객이 스스로 설정하는 지점으로,

전시는 그들이 어디에서 다시 시작할지 생각해볼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둡니다.

생각의 틈에 부는 바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점들을 되돌아보고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점을 찍어보는 경험을 제안합니다.



## ● 공간 구성 및 작품 구성 ●

1

한계점에 이르다



2

변곡점을 맞이하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마주하다.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버티던 지점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신이 직면한 한계를 마주하고,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출발점이 됩니다.

- 해당 섹션에서는 스스로가 작아졌던 순간을  
담담하게 담아낸 작품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 전시의 시작을 여는 섹션인 만큼,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로 연출할 예정입니다.

익숙하던 길 위에 낯선 기류가 스며들며,  
무엇이 옳은지 확신하기 어려운 감정이 뒤섞이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 속에서 맞이한 고민의 순간을  
우리는 인생의 변곡점으로 보았습니다.  
변화의 순간을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 안에 뒤섞인 복합적이고 미묘한 감정을 들여다봅니다.

- 해당 섹션에서는 변곡점을 마주한 순간의 복합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작품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 작품들의 감정적인 결을 고려하여, 섹션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변곡점의 다층적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연출할 예정입니다.



## ● 공간 구성 및 작품 구성 ●

→

3

초점을 맞추다

→

4

기점으로

우리의 지난 경험이 어떤 의미로 연결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를 향할지 스스로에게 묻다.

우리가 겪어온 경험들은 때로 힘들고 복잡했지만,  
그 점이 모여 지금의 나를 이루었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로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바라보게 되는 지점입니다.

이제 그 점을 바탕으로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마주합니다.

- 해당 섹션에서는 흩어져 있던 경험들이 한데 모여,  
개개인이 정의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작품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 다양한 분위기·색채·형태의 작품이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연출할 예정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지점을 출발점 삼아, 새로운 흐름을 그려 나가다.**

전시의 흐름을 따라 걸으며 마음이 머무는 순간을 출발점 삼아,  
이제는 자신만의 의지로 또 하나의 점을 찍어보는 경험을 제안합니다.

- 관람객이 자신의 '점'을 정의할 수 있도록, 넓은 벽면에  
다양한 색상의 네모난 포스트잇을 붙여 완성하는 참여형 콘텐츠입니다.
- 관람객이 자신의 경험을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한 메모지에 '인생 노선도'를 그려 완성하는 참여형 콘텐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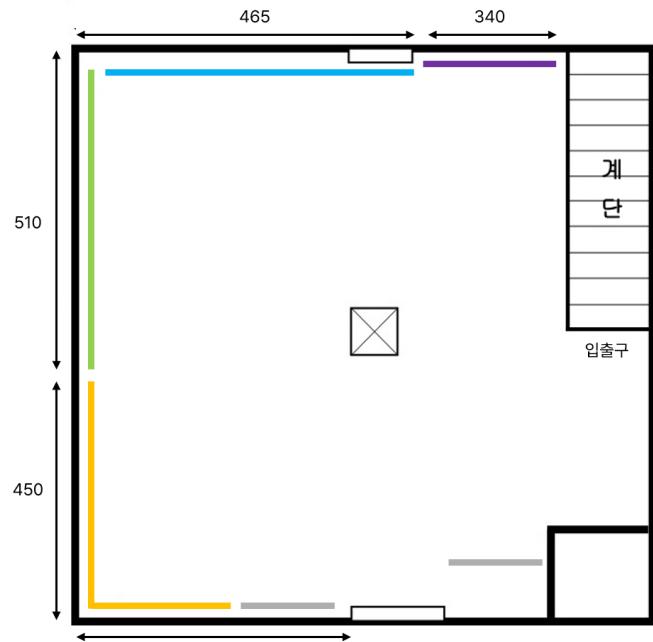
# ● 전시 개요 ●

전시일자

2026년 2월 25일 (수) ~ 2026년 3월 2일 (월)

전시장소

57th 갤러리 (서울 종로구 율곡로3길 17, 지하 1층)



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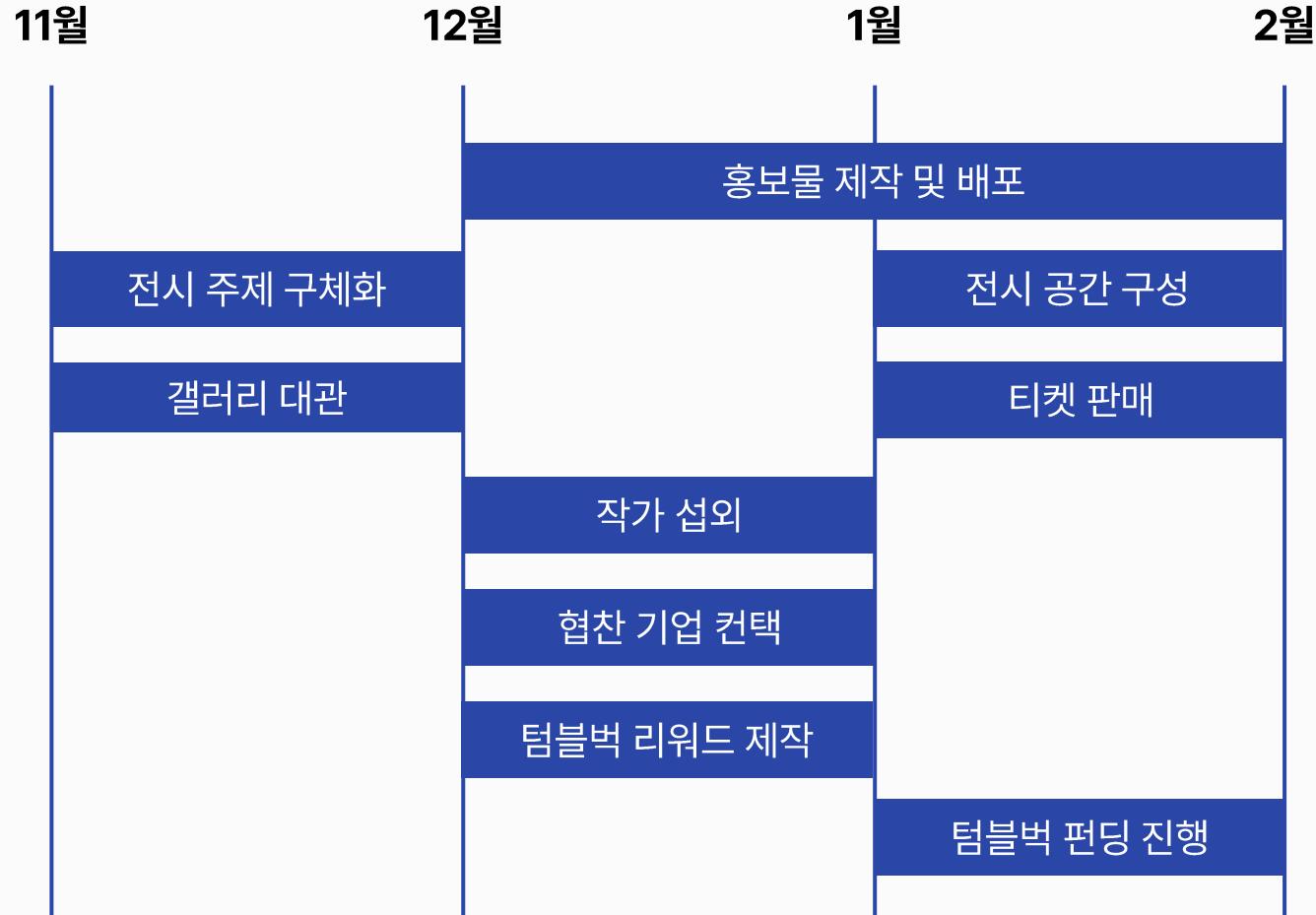
[Section 1](#)  
[Section 2](#)  
[Section 3](#)  
[Section 4](#)



전시장 내부 사진



## ● 일정 소개 ●



**2/25~3/2  
<어떤 점> 전시 진행**

\*세부 일정은 내부 진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기대 효과 ●

### 작가의 기회

- 작품 전시의 기회와 전시 장소 제공
- 참여 작가진 간의 커뮤니티 형성

### 관람객의 인사이트

- 전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
- 전시 작품을 통한 공감과 성장
- 전시를 직접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 확장

### 소통의 장

- 전시 과정 속에서의 깊이 있는 상호작용
- 작품과 메시지에 대한 다층적 이해
- 클로징 파티를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 획득

### 전시 주체의 다양성

- 신진 청년 작가들의 조명과 작품 활동 장려
- 다양성 확보를 통한 전시 산업 발전에 이바지



# 어떤 점

2025 C:MUSE 전시 기획 프로젝트  
전시기획서

---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속 '점'들을 바라보고, 스스로의 의미를 발견하는 이 여정에  
다양한 작가님들의 시선과 해석이 더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